

# 청년층 취업준비 노력의 취업효과 분석

박 성 재\*

## I. 머리말

많은 청년들이 일 경험, 교육훈련수강, 자격증 취득, 외국어시험 응시 등 다양한 취업준비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적자원 투자정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할 것이라는 기대는 높으나, 실제 그러한지 취업준비 노력 유형별로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과 자격증에 대한 교육투자가 노동시장 이행에 미친 영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은 첫 직장으로의 이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다만 자격증만이 현 직장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우영, 2002; 김안국, 2003). 재직근로자와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만 실업자, 전직희망자 그리고 청년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Perry et al., 1976; Couch, 1992). 반면 이상은(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와 20~24세 청년에게는 직업훈련이 취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은 첫 일자리로의 탈출확률을 높이고 이행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으며(이병희, 2003), 일자리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취업준비 확률이 높는데 그만큼 졸업 후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채창균, 2003). 그러나 재학 중 일자리 경험이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김우영, 2002)함을 볼 때 일 경험 유형별로 취업에 미친 효과가 상이할 것임을 예측케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들이 첫 직장 진입 이전에 어떤 유형의 취업준비를 하는지, 이러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 책임연구원(parksj@kli.re.kr).

한 취업준비노력은 노동시장 진입(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3년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자료(이하 졸업자조사)」이다. 졸업자조사는 청년들의 취업준비 시기 및 준비노력 유형(직업훈련, 자격증, 영어시험, 일 경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직업훈련, 자격증 등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년들의 취업준비 노력이 노동이동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노력

### 1. 분석자료 및 표본의 주요 특성

졸업자조사는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이행패턴 및 교육과 노동시장간 상호작용에 대한 현황과약을 목적으로, 2002년 2월 국내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4,026명(4년제 대학 졸업생 7,543명, 전문대 졸업생 6,483명)을 대상으로 2003년 12월 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 및 노동이동을 추적조사한 것이다. 표본선정과정을 거쳐 이 연구에 사용한 표본은 총 10,097명이다.

표본의 기초통계는 <표 1>과 같다. 전체 10,097명 중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졸업자가 4,737명(46.9%)이며 지방대학 졸업생은 5,360명(53.1%)이다. 성별로는 여성(52.8%)의 비율이 다소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 47.3%, 대학 52.7%이다. 전공계열 분포를 보면 이공자연계열이 47.1%로 가장 많고, 인문사회계열 32.4%, 교육의학계열 12.3%, 기타 8.2% 순이다. 표본의 조사시점 당시 취업여부와 첫 직장 경험여부를 보면 총 3,818명(37.8%)이 첫 직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취업자(8,210명)중 현 직장이 첫 직장인 자는 5,498명(54.5%)이다. 반면 781명(7.7%)은 조사시점까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표본의 92.3%인 9,316명이 조사시점까지 첫 직장을 경험하였거나 현 직장이 첫 직장인 셈이다.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대부분의 대졸자(97.8%)들은 임금근로자로 첫번째 일자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87.2%에 이르고 임시·일용비중은 12.8%에 불과하다. 인적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대졸, 자연공학계열, 서울소재 대학출신일수록 정규직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다. 사업장 규모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44.1%에 이르는 등 100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한 청년층이 64.4%로

<표 1>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별 첫 직장 경험유무 및 현재 취업여부

(단위: 명, %)

		현재 취업자		현재 미취업자		전 체
		첫직장 경험유	첫직장 경험무	첫직장 경험유	첫직장 경험무	
성	남성	1,126 (23.6)	2,808 (58.9)	427 ( 9.0)	405 ( 8.5)	4,766 [ 47.2]
	여성	1,586 (29.8)	2,690 (50.5)	679 (12.7)	376 ( 7.1)	5,331 [ 52.8]
학력	전문대	1,639 (34.3)	2,279 (47.7)	621 (13.0)	240 ( 5.0)	4,779 [ 47.3]
	대학	1,073 (20.2)	3,219 (60.5)	485 ( 9.1)	541 (10.2)	5,318 [ 52.7]
전공	인문사회	785 (24.0)	1,774 (54.3)	361 (11.0)	349 (10.7)	3,269 [ 32.4]
	자연공학	1,335 (28.1)	2,584 (54.3)	524 (11.0)	315 ( 6.6)	4,758 [ 47.1]
	교육의학	291 (23.5)	768 (62.0)	114 ( 9.2)	66 ( 5.3)	1,239 [ 12.3]
	기타	301 (36.2)	372 (44.8)	107 (12.9)	51 ( 6.1)	831 [ 8.2]
최종 학교 지역	서울	668 (22.6)	1,769 (60.0)	243 ( 8.2)	270 ( 9.2)	2,950 [ 29.2]
	수도권	582 (32.6)	898 (50.3)	219 (12.3)	88 ( 4.9)	1,787 [ 17.7]
	지방	1,462 (27.3)	2,831 (52.8)	644 (12.0)	423 ( 7.9)	5,360 [ 53.1]
전 체		2,712 (26.9)	5,498 (54.5)	1,106 (11.0)	781 ( 7.7)	10,097 [100.0]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표 2> 표본특성별 첫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장 규모

(단위: 명, %)

		성		학 교		전공계열				최종학교 지역			전 체
		남성	여성	전문대	대학	인문사회	자연공학	교육의학	기타	서울	수도권	지방	
종사상 지위	고용주	1.0	0.6	0.5	1.0	0.9	0.7	0.6	1.0	1.0	0.6	0.7	0.8
	자영자	1.7	0.8	1.1	1.4	1.0	1.0	0.9	4.1	1.2	1.1	1.4	1.3
	무급종사자	0.1	0.2	0.2	0.1	0.2	0.2	0.0	0.1	0.0	0.1	0.2	0.2
	상용	87.8	83.1	84.4	86.1	83.8	86.8	85.5	82.3	88.4	85.4	83.6	85.3
	임시일용	9.2	15.4	13.7	11.3	14.1	11.3	13.0	12.4	9.5	12.7	14.1	12.5
사업장 규모	1~29인	36.3	50.9	52.1	36.5	40.2	42.2	45.1	67.3	37.5	49.4	45.8	44.1
	30~99인	20.5	20.2	18.9	21.7	19.6	20.1	26.1	15.8	18.3	20.7	21.4	20.3
	100~299인	12.4	9.8	10.5	11.5	11.7	12.0	8.9	6.0	12.2	9.8	10.8	11.0
	300인 이상	30.7	19.1	18.5	30.3	28.4	25.6	19.9	10.9	32.1	20.1	22.0	24.6
전 체		4,361	4,956	4,540	4,777	2,920	4,443	1,174	780	2,680	1,699	4,938	9,317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취업비율은 24.6%에 불과하다. 남성일수록 그리고 대졸자일수록 취업사업장의 기업규모가 크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졸업자의 대규모 사업장 취업확률이 높다. 최종학교 출신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대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즉, 서울지역 졸업자의 경우 30인 미만 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37.5%에 불과하지만 지방대 졸업자는 45.8%에 이르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비율을 보면 서울소재 대학 졸업자는 32.1%에 이르는 반면 지방대 졸업자는 22.0%에 그치고 있다.

## 2. 대졸자들의 취업준비 노력

학생들의 취업준비는 일차적으로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집중된다. 이외에 전공심화 혹은 강의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지식과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을 들 수 있다. 특히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어가 가지는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어 등 외국어 자격증시험을 치루는 비중도 높다. 이는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시 학점, 어학, 자격증, 일 경험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인력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 3>은 100개 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기업들이 대졸 신입사원 공채시 사용하는 1차 서류전형 기준이다. 다양한 전형기준을 사용하지만 학력에 가장 높은 배점을 주고 있고, 학점, 어학, 전공, 연령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대졸 신입사원 1차 서류전형 기준

요 소	학 력	전 공	학점(4.5만점)	어 학	연 령
배점(100점)	40점	10점	20점	20점	10점
기등급(1.0)	소위 명문대	전공적합	4.0 이상	토익 900 이상	27세
나등급(0.9)	서울소재 주요대	-	3.5 이상	토익 800 이상	27±1세
다등급(0.8)	서울소재대, 지방국립대	유사전공	3.0 이상	토익 700 이상	27±2세
리등급(0.7)	수도권대, 지방사립주요대	-	2.5 이상	토익 600 이상	27±3세
미등급(0.6)	기타 대학	비전공	2.5 미만	토익 600 미만	27±4세

주 : 100개 실태조사기업의 인사자료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임.  
 자료 : 홍영란 외(2002).

먼저 청년들의 전체적인 취업준비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의 약 89.0%가 취업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적특성별로 보면 남자에 비해 여성이, 최종학교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 비해 수도권이나 지방출신자들의 취업준비율이 다소 높다. 전공계열별로는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준비율에 큰 차이가 없지만, 대졸자는 교육의학계열과 기타계열 출신자들의 준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준비한 자를 대상으로 어느 시점부터 준비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졸업년도와 졸업시점부터 취업을 준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비중은 높지 않지만 일부는 입학시점부터 취업을 준비했다고 응답하였는데, 교육년수의 차이로 전문대 졸업자(2.3%)가 대졸자(0.5%)에 비해 입학시점부터 취업을 준비한 비율이 다소 높다.

이하에서는 졸업자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취업준비 노력을 유형별로 살펴본다. 재학 중 및 학교졸업 후 영어학원, 직업기술학원 등의 교육훈련에 참여한 비율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재학 중에는 29.6%, 졸업 후에는 17.5%만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대졸자는 재학 중에는 52.7%, 졸업 후에는 22.7%가 여러 가지 유형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특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교육훈련을 받는 비율이 높고, 전공계열별로는 인문사회계열 전공자가 다른 계열 전공자에 비해 교육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 출신지역별로는 전문대 졸업자는 서울지역 소재 대학졸업자의 참여율이 높지만, 대졸자의 경우에는 대학소재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다.

교육훈련학원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외국어학원의 비중이 높지만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기술계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전문대 교육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대졸자는 어학교육 비중이 재학 중에는 73.1%, 졸업 후에는 60.1%에 이르고 있고, 기술계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비율은 12%내외에 그치고 있다. 한편 청년들의 취업난을 반영하듯 졸업 전에는 민간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전문대 5.6%, 대학 2.5%에 불과하였으나 졸업 후에는 각각 10.0%, 6.1%로 증가하고 있다.

별도로 표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들이 교육훈련을 받은 이유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는 재학 중에는 개인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59.4%에 이르고, 취업

<표 4> 표본의 취업준비 여부 및 취업준비 시기

(단위: 명, %)

		성		전공계열				최종학교 지역			전 체	
		남성	여성	인문사회	자연공학	교육의학	기 타	서 울	수도권	지 방		
전 문 대	취업 준비 여부	준비안함	12.5	11.0	11.8	11.6	11.4	11.0	13.8	10.5	11.3	11.6
		준비함	87.5	89.0	88.2	88.4	88.6	89.0	86.2	89.5	88.7	88.4
		전 체	1,835	2,944	1,257	2,463	687	372	966	1,362	2,451	4,779
	취업 준비 시기	졸업후 6개월시점	2.2	2.2	2.3	2.4	1.1	2.4	2.9	2.5	1.7	2.2
		졸업시점	37.7	43.2	40.5	41.8	39.9	40.2	47.3	41.1	38.7	41.1
		3학년	2.1	5.0	0.5	1.5	20.7	1.2	2.8	5.0	3.7	3.9
		2학년	50.4	43.3	50.4	47.5	32.0	47.1	41.8	45.0	48.1	46.0
		1학년	4.9	4.2	4.4	4.3	4.6	5.7	2.9	4.2	5.3	4.5
		입학시점	2.7	2.1	1.8	2.6	1.6	3.3	2.4	2.1	2.4	2.3
		전 체	1,606	2,621	1,109	2,178	609	331	833	1,219	2,175	4,227
대 학	취업 준비 여부	준비안함	11.2	10.9	10.9	9.7	14.1	14.8	13.2	9.2	9.8	11.0
		준비함	88.8	89.1	89.1	90.3	85.9	85.2	86.8	90.8	90.2	89.0
		전 체	2,931	2,387	2,012	2,295	552	459	1,984	425	2,909	5,318
	취업 준비 시기	졸업후 6개월시점	1.2	1.7	1.4	1.2	1.3	2.8	1.2	3.1	1.3	1.4
		졸업시점	18.4	20.1	18.8	17.5	22.8	24.8	19.2	18.7	19.1	19.1
		4학년	61.3	59.7	61.2	64.3	51.7	48.8	63.5	60.9	58.6	60.6
		3학년	15.5	14.9	14.4	15.2	18.1	15.3	13.2	14.8	16.6	15.2
		2학년	2.1	2.0	2.3	1.2	2.7	4.6	1.5	0.8	2.6	2.1
		1학년	1.0	1.3	1.2	0.6	2.5	2.0	1.0	1.3	1.2	1.1
		입학시점	0.5	0.4	0.6	0.0	0.8	1.5	0.5	0.5	0.5	0.5
전 체	2,604	2,127	1,793	2,073	474	391	1,722	386	2,623	4,731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준비 목적이라고 응답한 자는 16.2%에 불과하다. 그러나 졸업 후 받은 교육훈련의 목적은 개인의 발전(60.2%), 직업을 구하기 위해(26.6%) 순으로 나타나 졸업 후에는 구직차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반면 대졸자는 재학 중 받은 훈련부터 개인의 발전(51.0%)과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표 5> 교육훈련 유형별 참여비율

(단위 : 명, %)

		성		전공계열				최종학교 지역			전 체	
		남성	여성	인문사회	자연공학	교육의학	기 타	서 울	수도권	지 방		
전 문 대	재 학 중	기술학원	43.6	27.6	16.7	45.9	18.3	39.4	26.0	34.3	34.8	32.6
		외국어학원	36.8	55.2	71.3	35.3	58.9	29.3	60.2	48.5	44.6	49.5
		인문사회계학원	8.0	3.1	4.1	5.1	4.0	4.0	3.8	6.4	3.9	4.6
		경영실무학원	3.4	2.1	2.0	3.4	1.7	1.0	2.6	1.5	3.2	2.5
		예체능학원	1.6	6.9	1.5	2.9	16.6	18.2	5.0	4.2	6.0	5.2
		민간직업전문학교	6.6	5.1	4.3	7.3	0.6	8.1	2.3	5.1	7.5	5.6
	참여인원 (전체 인원 대비 참여비율)	438	978	460	682	175	99	342	408	666	1,416	
		(23.9)	(33.2)	(36.6)	(27.7)	(25.5)	(26.6)	(35.4)	(30.0)	(27.2)	(29.6)	
	졸 업 후	기술학원	34.4	21.2	14.2	33.4	17.8	31.7	18.4	24.7	29.5	25.1
		외국어학원	32.4	56.5	64.5	39.9	52.2	38.3	61.9	48.6	42.3	49.4
		인문사회계학원	12.6	4.4	7.1	5.9	12.2	3.3	5.4	6.9	7.7	6.8
		경영실무학원	4.9	2.7	3.2	4.2	1.1	1.7	3.6	4.0	2.7	3.3
		예체능학원	1.2	7.0	4.3	4.0	10.0	11.7	3.6	8.1	4.4	5.3
		민간직업전문학교	14.6	8.1%	6.7	12.6	6.7	13.3	7.2	7.7	13.4	10.0
참여인원 (전체 인원 대비 참여비율)	247	589	282	404	90	60	223	247	366	836		
	(13.5)	(20.0)	(22.4)	(16.4)	(13.1)	(16.1)	(23.1)	(18.1)	(14.9)	(17.5)		
대 학	재 학 중	기술학원	11.9	11.7	8.6	13.7	8.8	21.9	8.8	10.1	14.1	11.8
		외국어학원	73.0	73.2	75.1	75.8	61.7	59.5	77.4	77.1	69.5	73.1
		인문사회계학원	9.0	8.1	10.5	5.0	20.4	4.8	8.8	7.5	8.5	8.5
		경영실무학원	2.3	1.8	3.0	1.4	2.1	0.5	2.1	2.6	1.9	2.0
		예체능학원	1.2	2.9	0.6	1.6	5.4	8.6	0.8	0.4	3.2	2.1
		민간직업전문학교	2.6	2.3	2.2	2.5	1.7	4.8	2.1	2.2	2.8	2.5
	참여인원 (전체 인원 대비 참여비율)	1,361	1,439	1,134	1,216	240	210	1,053	227	1,520	2,800	
		(46.4)	(60.3)	(56.4)	(53.0)	(43.5)	(45.8)	(53.1)	(53.4)	(52.3)	(52.7)	
	졸 업 후	기술학원	17.7	10.8	10.1	17.1	13.8	17.1	10.5	18.5	15.6	13.8
		외국어학원	58.2	61.5	62.2	62.2	50.9	50.5	68.6	62.0	53.5	60.1
		인문사회계학원	12.2	15.1	17.2	9.7	23.3	5.7	11.2	8.7	16.5	13.8
		경영실무학원	3.6	2.5	3.5	2.7	2.6	1.9	3.2	4.3	2.7	3.0
		예체능학원	1.5	4.4	1.0	1.9	4.3	18.1	1.9	2.2	4.2	3.1
		민간직업전문학교	6.7	5.7	6.0	6.3	5.2	6.7	4.6	4.3	7.5	6.1
참여인원 (전체 인원 대비 참여비율)	524	683	513	473	116	105	474	92	641	1,207		
	(17.9)	(28.6)	(25.5)	(20.6)	(21.0)	(22.9)	(23.9)	(21.6)	(22.0)	(22.7)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32.2%)라는 비율이 높는데, 이러한 경향은 졸업 후 받는 교육훈련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졸업 후 교육훈련을 받은 이유를 보면 개인의 발전(55.1%)과 직업을 구하기 위한(35.5%)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문사회계열과 지방대 졸업자는 직업을 구하기 위한 목적의 교육훈련 비율이 졸업 후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교육훈련이 취업에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한 결과 전문대의 경우 재학 중 훈련에 대해서는 49.9%, 졸업 후 훈련에 대해서는 54.1%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대졸자의 경우에는 각각 54.8%, 57.3%로 나타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우호적이었다.

다음으로 자격증 관련사항을 보면 1명이 최대 15개까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 취득개수는 전문대 졸업자는 1.56개, 대졸자는 1.03개로 집계되었다. 인적특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지방대 출신자일수록 자격증 취득개수가 많다. 자격증 취득률을 보면 전문대 졸업자는 68.7%, 대졸자는 54.5%가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률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서울지역 출신자보다는 지방대 출신자일수록 비율이 높다. 전공교육의 특성상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자연공학계열 및 교육의학계열 졸업자의 자격증 취득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6> 자격증 취득비율 및 평균 개수

(단위: 명, %, 개)

		성		전공계열				최종학교 지역			전체
		남성	여성	인문사회	자연공학	교육의학	기타	서울	수도권	지방	
전문대	취득자비율	66.3	70.2	65.6	68.3	80.5	60.2	64.9	67.9	70.7	68.7
	취득개수	1.38	1.68	1.65	1.51	1.60	1.52	1.43	1.50	1.65	1.56
대학	취득자비율	49.5	60.6	52.1	54.2	85.5	28.8	44.7	52.7	61.4	54.5
	취득개수	0.95	1.13	1.01	1.00	1.57	0.64	0.82	0.99	1.18	1.03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취득한 자격증 분야를 보면 학력과 무관하게 국가기술자격 취득비율이 높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58.7%), 민간자격(20.4%), 국가자격(19.2%)의 비율이 높고, 대졸자는 국가기술자격(56.4%), 국가자격(15.1%), 민간자격(12.0%) 순이다. 대졸자의 경우 민간자격(민간자격+민간공인자격) 취득비율이 23.0%로 전문대 졸업자와 비슷한 수준(20.7%)이지만, 전문대 졸업자와 달리 민간공인자격 취득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취득한 자격증이 전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면 전문대는 70.6%에 이르고 있지만, 대졸자는 52.9%에 그치고 있다. 교육의학과 이공자연계열 졸업자일수록 전공과 일치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비율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은 일치하는 비율이 전문대 54.2%, 대

<표 7> 자격증 취득비율 및 평균 개수

(단위: 명, %, 개)

			성		전공계열				최종학교 지역			전 체	
			남성	여성	인문사회	자연공학	교육의학	기 타	서 울	수도권	지 방		
전문대	자격종류	국가자격	8.7	25.5	16.6	7.8	58.0	19.8	16.5	22.6	18.4	19.2	
		국가기술자격	77.6	47.5	47.7	77.9	19.6	50.9	59.8	56.7	59.3	58.7	
		민간공인자격	0.2	0.4	0.4	0.2	0.4	0.9	0.3	0.3	0.3	0.3	
		민간자격	12.9	24.8	31.4	13.4	22.1	27.9	21.3	19.1	20.7	20.4	
		국제자격	0.7	1.7	3.9	0.7	0.0	0.5	2.1	1.2	1.2	1.3	
	전공일치 여부	일치함	73.9	68.6	54.2	76.8	78.1	65.8	71.8	70.7	70.0	70.6	
		일치 않음	26.1	31.4	45.8	23.2	21.9	34.2	28.2	29.3	30.0	29.4	
	전 체		1,212	2,049	818	1,674	547	222	625	920	1,716	3,261	
	대학	자격종류	국가자격	10.4	19.7	14.8	6.2	36.7	24.0	15.4	20.5	14.2	15.1
			국가기술자격	59.8	52.9	43.1	70.7	54.0	34.9	50.5	50.9	60.0	56.4
민간공인자격			11.0	11.0	19.4	8.0	2.4	4.7	11.4	10.5	10.9	11.0	
민간자격			10.8	13.1	16.7	7.9	6.3	33.3	14.0	10.9	11.1	12.0	
국제자격			8.0	3.2	6.0	7.3	0.6	3.1	8.7	7.3	3.8	5.6	
전공일치 여부		일치함	58.7	47.1	40.0	59.5	61.6	62.0	60.6	60.0	48.2	52.9	
		일치 않음	41.3	52.9	60.0	40.5	38.4	38.0	39.4	40.0	51.8	47.1	
전 체		1,430	1,423	1,031	1,230	463	129	874	220	1,759	2,853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졸자 40.0%에 불과하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소재지 대학 졸업자는 전공과 일치한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60%대에 이르고 있지만 지방대 졸업자는 48.2%로 현저히 낮다.

재학 중 일을 경험한 비율이 평균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다양한 일 경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경험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취업(개인과외지도는 제외)을 경험한 비율이 전문대 졸업자는 61.2%, 대졸자는 7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장실습(전문대 졸업자 33.0%, 대졸자 10.2%), 정규직 취업 순이다. 창업을 경험한 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적특성별로 보면 현장실습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공자연계열과 교육의학계열 졸업자의 참여율이 높다. 즉, 전문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26.6%만이 현장실습 경험이 있지만 교육의학계열은 44.0%, 자연공학계열 33.5%에 이르고 있다. 지역별로는 정규직 취업경험은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의 경험률이 높지만 현장실습은 지방대 출신자의 참여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일 경험자에게 재학 중 일 경험이 취업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정규직 취업경험과 현장실습이 취업에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창업(33.3%)과 아르바이트(40.9%) 경험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지만, 정규직 취업경험(83.9%)과 현장실습(64.8%)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교육의학계열 전공자의 평가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출신지역별로는 정규직 경험은 서울지역 출신자가, 현장실습은 지방대 출신자가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전문대 졸업자와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외국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시 외국어능력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어능력은 외국어시험 점수를 통해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외국어시험을 보고 있는데, 표본에서 외국어 시험 경험여부를 보면 학력별로 큰 차이가 있다. 전문대 졸업자는 외국어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12.9%에 불과하지만 대졸자는 58.0%에 이르고 있다. 외국어시험은 거의 대부분 영어시험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어(JPT)나 중국어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표본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영어시험에서도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시 많이 활용하

<표 8> 재학 중 일 경험 비율

(단위: 명, %, 개)

		성		전공계열				최종학교 지역			전 체
		남성	여성	인문사회	자연공학	교육의학	기 타	서 울	수도권	지 방	
전문대	정규직	11.0	9.1	8.6	11.1	7.0	11.3	10.2	9.9	9.7	9.9
	시간제	60.6	61.6	63.4	60.2	60.7	61.8	62.5	62.6	59.9	61.2
	현장실습	33.1	32.9	26.6	33.5	44.0	30.6	26.3	34.1	35.0	33.0
	창업	0.7	0.3	0.3	0.6	0.1	0.3	0.3	0.4	0.5	0.4
	전 체	1,212	2,049	818	1,674	547	222	625	920	1,716	3,261
대 학	정규직	7.1	5.6	7.3	6.5	3.3	6.5	7.5	7.1	5.6	6.4
	시간제	73.5	70.9	74.0	73.6	59.2	74.3	70.8	78.4	72.4	72.3
	현장실습	8.5	12.2	7.1	8.8	22.6	15.0	8.0	10.4	11.6	10.2
	창업	1.2	0.2	0.5	0.9	0.5	1.3	0.9	1.2	0.6	0.8
	전 체	1,430	1,423	1,031	1,230	463	129	874	220	1,759	2,853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표 9> 일 경험이 취업에 도움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명, %)

		성		전공계열				최종학교 지역			전체
		남성	여성	인문사회	자연공학	교육의학	기타	서울	수도권	지방	
전문대	정규직	79.7	87.0	82.4	83.2	89.6	85.7	87.9	80.7	84.0	83.9
	아르바이트	37.1	43.2	40.8	38.9	44.8	47.4	40.4	43.3	39.8	40.9
	현장실습	56.7	69.9	65.3	56.1	85.8	71.1	57.1	67.2	65.7	64.8
	창업	33.3	33.3	25.0	33.3	0.0	100.0	0.0	33.3	41.7	33.3
대 학	정규직	79.9	83.6	80.8	80.5	94.4	80.0	87.2	80.0	76.2	81.3
	아르바이트	40.3	49.2	43.9	42.0	42.2	58.7	43.8	47.7	43.9	44.2
	현장실습	62.5	75.3	62.9	62.1	88.8	69.6	66.7	63.6	71.5	69.4
	창업	48.6	40.0	18.2	55.0	33.3	83.3	55.6	40.0	41.2	47.5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고 있는 토익(TOEIC)시험에 집중되어 있다. 전문대 졸업자는 토익시험을 본 경험이 있는 자가 8.4%이고, 대졸자는 45.5%에 이르고 있지만 TOEFL이나 TEPS시험 응시자는 2%에 불과하다. 대졸자들이 많이 응시하는 TOEIC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TOEIC 평균 점수는 699.3점으로 나타났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공계열보다는 인문사회계열 졸업자가, 지방대 출신자보다는 서울지역 출신자의 평균점수가 높았다.

취업에 있어 학점은 매우 중요하다. 학점은 전공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정도와 학창생활의 성실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시 학점을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점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편이다. 학점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할 경우 자신의 환산학점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문대는 80.6점, 대졸자는 77.7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예상보다 학생들의 평균 학점이 높은 편이다. 인적특성별로 환산학점을 비교해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학점이 높고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공학계열 전공자의 학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방대 졸업자가 서울지역 대졸자에 비해 조금 높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의 하나로 이력서 제출횟수와 최종 면접횟수를 살펴보자. 이력서 제출횟수는 전문대 졸업자는 평균 4.6회, 대졸자는 평균 10.0회로 나타나 대졸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첫 직장을 얻기까지 최종 면접한 회사는 전문대 졸업자는 2.4회, 대졸자는 3.0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졸자의 구직난이 보다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특성별로 구분해 보면 전문대의 경우 성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대졸자는 여자(7.0회)에 비해 남자(12.5회)의 이력서 제출횟수가 훨씬 많다.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공학계열 대졸자는 11.8회로 교육의학계열(2.4회)에 비해 무려 4배 가량 높다. 출신지역별로는 지방대 출신에 비해 서울지역 출신자의 제출횟수가 50% 가량 많다. 반면 남성, 서울소재 대학출신, 인문사회계열과 이공자연계열 졸업자일수록 최종 면접횟수가 많지만 그 차이는 많지 않은 편이다.

### Ⅲ. 취업준비 노력의 취업효과

청년들의 취업준비 노력의 노동시장 성과는 이행효과, 취업효과, 임금효과 등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취업에 미치는 효과만 살펴본다. 취업효과를 평가할 때 단순히 취업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일자리에 취업했는지, 즉 ‘일자리의 질’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졸업자조사에는 일자리의 질(소위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을 측정

<표 10> 대졸자들의 평균학점

(단위 : %, 명)

		전문대			대 학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성	남성	79.2	1,835	10.2	76.2	2,931	8.3
	여성	81.5	2,944	9.1	79.6	2,387	7.9
전공	인문사회	80.7	1,257	9.9	78.5	2,012	8.2
	자연공학	80.0	2,463	9.8	76.6	2,295	8.4
	교육의학	81.6	687	8.2	78.8	552	8.4
	기타	82.2	372	9.5	78.5	459	8.1
최종학교지역	서울	80.3	966	9.3	77.2	1,984	8.0
	수도권	79.9	1,362	9.8	77.1	425	8.3
	지방	81.1	2,451	9.6	78.2	2,909	8.5
	영남	81.2	1,210	9.2	79.1	1,080	8.4
	호남	80.8	803	10.1	77.4	1,168	8.7
	충청	81.1	342	10.0	78.7	407	8.3
	기타	81.9	96	10.3	77.6	254	8.5
전 체		80.6	4,779	9.6	77.7	5,318	8.3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표 11> 이력서 제출횟수 및 최종 면접횟수

(단위 : %, 명)

			이력서 제출횟수		최종 면접횟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성	남성		5.4	1,713	2.5	1,713
	여성		4.1	2,790	2.4	2,789
전문대	전공	인문사회	4.7	1,182	2.5	1,182
		자연공학	5.1	2,316	2.5	2,315
		교육의학	3.1	651	2.2	651
		기타	3.3	354	2.1	354
지역	지역	서울	6.5	904	3.1	904
		수도권	4.3	1,284	2.3	1,283
		지방	4.0	2,315	2.3	2,315
전 체			4.6	4,503	2.4	4,502
성	남성		12.5	2,930	3.4	2,929
	여성		7.0	2,383	2.5	2,385
대 학	전공	인문사회	11.0	2,011	3.5	2,012
		자연공학	11.8	2,292	3.2	2,292
		교육의학	2.4	551	1.1	551
		기타	5.8	459	2.3	459
지역	지역	서울	12.4	1,983	3.5	1,981
		수도권	10.9	425	3.4	425
		지방	8.3	2,905	2.6	2,908
전 체			10.0	5,313	3.0	5,314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할 수 있는 변수가 없어 취업효과를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여부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취업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소기업 분류기준이 300인이고 300인을 기준으로 기업의 보상수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사용할 경우 대기업에서 청년들의 취업준비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모형 1은 취업준비 노력 유형별로 취업효과를 살펴본 것이고 모형 2는 취업준비 노력 유형 내에도 다양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하부 유형별로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때 취업준비 노력이 어떤 영향을

<표 12> 취업준비노력이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에 미친 효과(전사업장)

	전문대				대학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B	S.E.	B	S.E.	B	S.E.	B	S.E.
남성	0.006	0.159	0.042	0.161	-0.012	0.134	-0.051	0.135
연령	-0.114	0.034 ***	-0.137	0.035 ***	-0.100	0.037 ***	-0.094	0.037 **
인문사회계열	-0.115	0.236	-0.112	0.238	-0.223	0.158	-0.272	0.160 *
자연공학계열	0.109	0.230	0.088	0.232	0.332	0.165 **	0.272	0.167
교육의학계열	0.689	0.299 **	0.707	0.302 **	0.268	0.208	0.239	0.210
서울소재 대학 출신	0.130	0.157	0.149	0.159	0.071	0.096	0.080	0.097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	0.149	0.142	0.154	0.143	0.531	0.192 ***	0.540	0.193 ***
학점	0.020	0.006 ***	0.019	0.006 ***	0.013	0.005 **	0.008	0.005
취업전 교육훈련 수강여부	-0.109	0.125			-0.213	0.091 **		
재학중 직훈받음			-0.082	0.136			0.111	0.093
졸업후 직훈받음			-0.046	0.160			-0.683	0.100 ***
재학중 일 경험	0.347	0.132 ***			0.395	0.096 ***		
정규직 경험			0.969	0.262 ***			0.614	0.229 ***
시간제 취업경험			-0.100	0.126			0.269	0.094 ***
현장실습 경험			0.224	0.137			0.338	0.167 **
창업 경험			-1.611	0.554 ***			-0.462	0.431
자격증 취득유무	-0.044	0.194	-0.029	0.195	-0.007	0.137	0.046	0.138
자격증 개수	0.056	0.051	0.045	0.051	0.031	0.049	0.027	0.050
자격증 전공과 일치	0.178	0.162	0.149	0.163	0.479	0.130 ***	0.424	0.131 ***
토익 700점 이상 취득	-0.628	0.777	-0.651	0.788	0.205	0.124	0.181	0.126
이력서 제출횟수	-0.012	0.005 ***	-0.011	0.005 **	-0.008	0.003 ***	-0.008	0.003 ***
최종 면접횟수	0.140	0.037 ***	0.145	0.037 ***	0.140	0.022 ***	0.139	0.022 ***
취업준비 함	1.299	0.139 ***			1.127	0.109 ***		
취업준비 시기 - 졸업 후			1.268	0.159 ***			0.661	0.133 ***
취업준비 시기 - 졸업년도			0.378	0.571			1.362	0.122 ***
취업준비 시기 - 4학년이전			1.556	0.160 ***			1.213	0.152 ***
상수	2.111	0.931 **	2.846	0.945 ***	1.970	1.058 *	2.261	1.066 **
-2 Log likelihood	2,156.048		2,126.437		3,665.670		3,576.466	
N	4,779		5,318		4,779		5,318	

주 : \* P < 0.1, \*\* P < 0.05, \*\*\* P < 0.01임.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미치는가를 살펴보자(표 12 참조).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연령, 전공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학점이 높을수록 재학 중 취업경험자와 취업준비 노력을 했을 경우 취업확률이 높다. 이력서 제출횟수가 많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지만 최종 면접횟수는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모형 2에서 취업준비 노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학점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재학중 일 경험에 있어 정규직 경험은 취업확률을 높이지만 창업경험은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추고 있다. 청년들이 많이 경험하는 시간제 취업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서 취업준비 시기를 보면 졸업년도에 취업준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준비 시기가 이룰수록 취업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표 13> 취업준비 노력의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에 대한 효과

	전문대				대학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B	S.E.	B	S.E.	B	S.E.	B	S.E.
남성더미	0.184	0.112 *	0.190	0.112 *	0.850	0.105 ***	0.837	0.106 ***
만나이	-0.026	0.026	-0.031	0.026	-0.067	0.029 **	-0.065	0.029 **
인문사회더미	1.181	0.209 ***	1.192	0.210 ***	0.640	0.156 ***	0.632	0.157 ***
자연공학더미	0.880	0.207 ***	0.884	0.207 ***	0.807	0.156 ***	0.786	0.157 ***
교육의학더미	1.177	0.220 ***	1.197	0.221 ***	0.305	0.189	0.271	0.190
서울지역 출신더미	0.133	0.102	0.141	0.102	0.385	0.071 ***	0.393	0.072 ***
수도권 출신더미	0.026	0.090	0.026	0.091	0.080	0.126	0.083	0.127
학점	0.001	0.004	0.000	0.004	0.020	0.004 ***	0.018	0.004 ***
취업전 교육훈련 수강여부	0.053	0.080			-0.084	0.067		
재학중 직훈받음			0.162	0.085 *			0.081	0.068
졸업후 직훈받음			-0.045	0.104			-0.331	0.084 ***
재학중 일 경험	0.291	0.099 ***			-0.010	0.078		
정규직 경험			0.350	0.124 ***			0.196	0.127
시간제 취업경험			0.170	0.081 **			-0.074	0.073
현장실습 경험			0.114	0.083			0.229	0.109 **
창업 경험			-0.294	0.632			-0.143	0.373
자격증 취득유무	-0.105	0.127	-0.106	0.127	-0.078	0.103	-0.060	0.103
자격증 개수	0.020	0.029	0.015	0.029	0.019	0.032	0.019	0.032
자격증 전공과 일치	-0.021	0.103	-0.012	0.103	0.140	0.091	0.116	0.091
토익 700점 이상 취득	0.665	0.506	0.643	0.508	0.878	0.079 ***	0.876	0.080 ***
이력서 제출횟수	-0.006	0.006	-0.007	0.006	-0.002	0.002	-0.002	0.002
최종 면접횟수	-0.004	0.016	-0.002	0.016	0.017	0.008 **	0.017	0.008 **
취업준비 합	0.092	0.125			0.056	0.108		
취업준비 시기 - 졸업 후			0.081	0.135			-0.082	0.130
취업준비 시기 - 졸업년도			1.124	0.437 ***			0.104	0.112
취업준비 시기 - 4학년이전			0.115	0.130			0.055	0.131
상수	-2.309	0.711 ***	-2.139	0.714 ***	-2.274	0.845 ***	-2.185	0.850 ***
-2 Log likelihood	4,375.808		5,742.317		4,361.448		5,713.896	
N	4,779		5,318		4,779		5,318	

주: \* P<0.1, \*\* P<0.05, \*\*\* P<0.01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졸업자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대졸자를 살펴보면, 교육훈련은 취업확률을 낮추지만 자격증과 외국어 시험 응시여부는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다. 취업준비 노력 세부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학점은 통계적 유의성이 상실되고 졸업 후 받는 직업훈련은 취업확률을 낮추고 있다. 일 경험은 창업 경험을 제외한 모든 일 경험이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자격증은 전공과 일치하는 자격증일 경우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취업준비 시기 역시 미준비자에 비해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토익점수가 700점 이상이라도 취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이다. 이는 대졸자의 69.7%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에는 학점,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다양한 일 경험, 외국어능력 등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취업준비 노력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전공, 재학 중 취업경험만이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준비 활동을 구체적으로 세분해 살펴보면 재학 중 직업훈련과 재학 중 일 경험에서 정규직과 시간제 취업경험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졸자를 보면 성, 연령, 전공과 같은 인적 속성 외에 대학소재지, 학점, 영어점수만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모형 2를 보면 졸업 후 받는 직업훈련은 취업확률을 낮추고 재학 중 일 경험에서는 현장실습만이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업훈련, 자격증 등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취업준비 노력 실태를 밝히고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분석결과 90%에 가까운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였고, 취업준비 시기는 대부분 졸업을 앞둔 해와 졸업시점이었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활동은 교육훈련 참가(외국어학원 포함), 자격증 취득, 외국어시험 응시, 재학 중 일 경험 등 다양했으며, 취업준비 유형은 학력, 전공별로 상이하였다.

교육훈련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는 외국어학원 외에 기술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이 높지만 대졸자는 외국어학원을 다닌 비율이 많았다. 자격증은 전문대 졸업자들의 자격증 취득비율이 높고 교육체계의 영향으로 이공자연계열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은 교육의학계열, 인문사회계열은 민간(공인)자격을 취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득한

자격증이 전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면 대졸자에 비해 전문대 졸업자일수록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에 비해 이공자연계열과 교육의학계열일수록 일치확률이 높았다. 일 경험 여부를 보면 전문대와 대졸자 모두 시간제 취업경험이 높는데, 전문대 졸업자는 현장실습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어시험 응시여부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 중 외국어시험을 응시한 자는 12.9%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졸자는 58.0%에 이르러 외국어시험 응시여부는 학력별 격차가 큰 편이다. 외국어시험은 거의 영어시험에 집중되고 있는데 TOEIC시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노력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력과 무관하게 학점과 재학 중 일 경험, 취업준비 활동은 취업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는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외국어능력(TOEIC 700점 이상)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 역시 교육훈련이 취업확률을 높이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업확률이 높아지며, 일 경험도 정규직과 현장실습 외에 시간제 취업도 취업확률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졸자 역시 외국어능력이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취업에 미친 효과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 취업준비 노력 중 재학 중 교육훈련 참여와 정규직과 시간제 취업경험만이 취업확률이 높고 있다. 반면 대졸자는 최종학교 출신지역 외에 학점, 현장실습 경험, 외국어능력은 취업확률을 높이지만, 직업훈련은 오히려 취업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력별로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노동시장 성과가 상이한 것은 전문대와 대졸자간에는 상이한 채용관행이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여러 노력들이 대체적으로 취업에 유의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일한 취업준비 활동임에도 노동시장에서의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취득여부나 자격증 개수보다 전공과 일치하는 자격증인지 여부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이를 시사한다. 아울러 좀더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노력보다 학점과 영어학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준비 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력 및 전공 등을 고려한 전략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L**

## &lt;참고문헌&gt;

- 강순화·노홍성(2000), 「직업훈련의 취업 및 임금효과」,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2호
- 김우영(2002), 「학력, 훈련, 아르바이트, 자격증의 경제적 효과」,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중앙고용정보원.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6집 제1호
- 민혜리(2003), 「대학졸업자 취업구조의 변화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양식 변화에 미친 영향」, 『교육비평 2003』, 제11호
- 이병희(2002), 「청년층의 직업세계 정착과정과 경력형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은(2005),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의 취업 및 근로소득 효과」, 『사회복지정책』, 제23권.
- 채창균(2003), 「대학생의 재학중 일자리 체험과 취업준비」, 『직업교육연구』, 제22권 1호
- 홍영란·이남철·신범석(2002), 「기업의 직원채용 및 승진 등에 학별이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Couch, K. A.(1992), “New Evidence on the Long-term Effects of Employment Training Program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0.
- Perry, C. et al.(1976), *The Impact of Government Manpower Programs*,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